

중국 관광업계 동향[26년 8월 2차]

□ 중국 정부 정책

-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 <중소도시·지역 소비 활성화에 관한 의견> 발표
 -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공동 발표 그 중 문화·관광 관련 내용은 ▲지역 핵심 상권 및 특색 상업거리 조성, 대형 복합쇼핑몰 확충 및 국내외 브랜드의 지역 첫 매장 유치 지원 ▲지역 고유 문화를 활용한 특색 점포 및 전통 브랜드 육성, 중국 로컬 브랜드의 중소도시 진출 지원 ▲웰니스·관광·농업·민속·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소비 콘텐츠 개발 ▲인접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광역 관광·소비 코스 조성 및 도시 주민의 농촌지역 방문·소비 확대 등을 제시

□ 통계 분석 및 예측

- 2026년 추석(9.25~9.27) 및 국경절(10.1~10.7) 연휴 국내선 항공권 예약량 171만 장 돌파
 - 항공 전문 플랫폼 항튀중형 데이터에 따르면, 2026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 국내선 항공권 예약량은 171만 장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약 7% 증가했으며, 출입국 노선 항공권 예약량은 128만 장 돌파
 - 추석 연휴 및 국경절 연휴 기간 인기 해외·역외 목적지 TOP8: 서울, 홍콩, 타이베이, 싱가포르, 방콕, 런던, 쿠알라룸푸르, 모스크바 순으로, 서울이 1위를 기록
- 2026년 7월 민항 국제선 여객 운송량 726만 명
 - 중국민항국 발표에 따르면, 2026년 7월 민항 전체 여객 운송량은 7,462.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9% 증가. 이 중 국내선 여객 운송량은 6,736.9만 명으로 4.1% 증가했으며,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726만 명으로 2.3% 증가

○ 2026년 1~7월 전국 철도 여객 수송량 28억 명

- 중앙신문보도에 따르면, 2026년 1~7월 전국 철도 여객 수송량은 28억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.1% 증가했으며, 7월 말 기준 누적 관광열차 운행 횟수는 2,159편으로 집계됨. 또한 해당 기간 누적 외국인 여객 1,485만명을 수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.2% 증가

○ 중국여행협회 <2026년 상반기 관광시장 조사 보고서> 발표

- (요약) 무비자 정책 효과 등 상반기 중국 인바운드 관광은 고성장 추세, 국가이민관리국 통계 기준 상반기 외국인 중국 입국자는 2,291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.4% 증가. 베이징 입국관광객 327만 명(+32.6%), 상하이 531만 명(+27.8%), 충칭 144만 명(+56.8%)으로 집계되었다. OTA(씨트립) 데이터에서 2026년 상반기 입국관광 인원과 소비는 각각 동기 대비 49.7%, 44.0% 상승했고, 관광지 입장권 주문량은 231.4% 증가

□ 경쟁국/지역 · 기타 동향

○ (일본) 2026년 7월 중국 대륙 일본 방문객 수 전년 동기 대비 56.1% 급감

- 일본정부관광국 발표에 따르면, 2026년 7월 중국 본토 방일객은 42.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.1% 감소, 2025년 12월 이후 이어진 감소세 지속

○ (홍콩) 2026년 1~7월 홍콩 방문객 3122만 명

- 홍콩관광청 발표에 따르면, 2026년 7월 홍콩 방문객은 4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% 증가했으며, 1~7월 누적 방문객은 약 3,12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% 증가